

SDI 2012년 1/4분기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 전망

2012. 3. 19 제111호

박희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목 차 >

요약

- I.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 II. 서울의 1/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전망
- III. 서울의 1/4분기 기업 체감경기 전망
- IV. 요약 및 시사점

부록: 2012년 1/4분기 주요 조사 결과

요 약

최근 서울의 경기회복세 부진으로 고용여건 개선 미비

서울의 산업생산은 2011년 7월 전년동월대비 -18.4%로 저점을 통과한 후 회복국면에 진입했으나 2012년 1월 -7.3%를 기록하는 등 최근 6개월간 평균 -6%대의 성장률로 회복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내수로 대표되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도 최근 6개월간 전년동기대비 평균 2.4%의 낮은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 1월의 경우 증가율이 0.9%로 하락하였다. 생산활동과 내수가 이처럼 부진한 이유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소비재 및 자본재 생산의 감소와 대형마트 판매액의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고용시정을 나타내는 취업자수 증가율은 2010년 8월 전년동월대비 3.6%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2년 1월 0.2%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6개월간 평균 0.5%로 고용시정의 개선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4분기 서울의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 모두 하락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12년 1/4분기에 전분기 대비 3.3p 하락한 82.7로 2009년 1/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가계가 느끼는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요소인 「생활형편지수」와 「소비지출지수」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서울시민들의 전반적인 체감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소재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업황실적지수」 또한 2012년 1/4분기 78.1로 4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제조업 부문 「업황실적지수」는 2011년 4/4분기부터 비제조업 부문의 「업황실적지수」보다 더 두드러지게 하락하고 있어 제조업부문의 경기가 크게 악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 외 기업의 주요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경상이익, 매출, 내수 등이 전분기 대비 하락하고 있어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용창출 및 잠재성장력 회복 등의 대책 마련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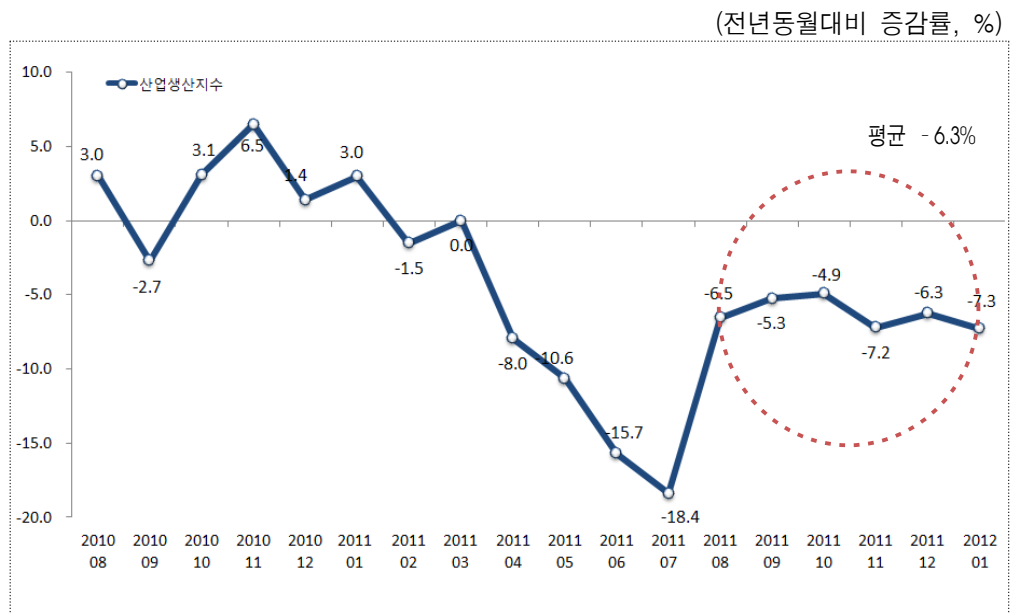
서울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고용창출, 잠재성장력 회복, 물가안정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의 잠재성장력 회복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도심에 특화된 중소제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보호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대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I.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최근 서울의 산업생산과 소비는 회복세 주춤, 고용은 침체기

□ 서울의 산업생산은 2011년 하반기 이후로 회복세 정체

- 최근 자본재 생산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소비재와 중간재 생산은 부진하여 서울의 산업생산지수는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함.
- 산업생산지수는 2011년 8월(-6.5%) 상승세로 반전한 이후 최근 6개월간 평균 -6.3%로 횡보세 유지
- 2012년 1월 서울의 산업생산지수는 소비재 및 자본재 생산 감소에 기인하여 전년동월대비 -7.3%를 기록
- 부문별로 자본재 생산은 2012년 1월 전년동월대비 20.9% 증가한 반면 소비재 및 중간재 생산은 각각 11.7%, 16.2%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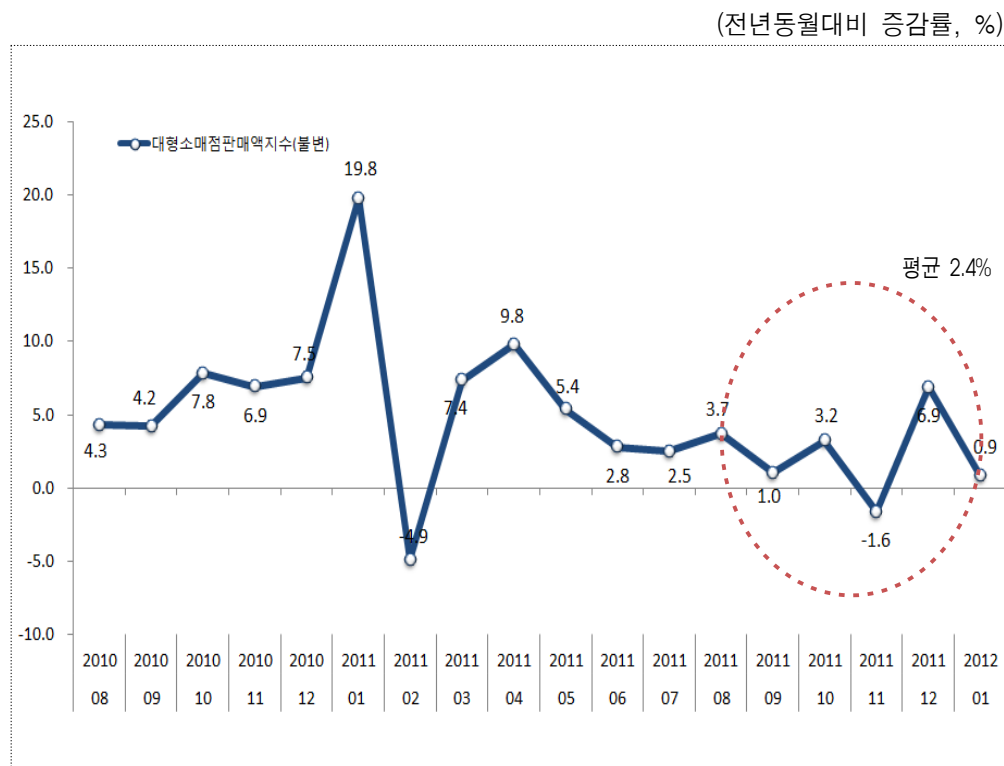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그림 1] 서울의 산업생산

□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는 최근 6개월간 평균 2.4% 성장

- 내수로 대표되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12년 1월 전년동월대비 0.9% 성장
- 부문별로 백화점 판매액은 1.0%, 대형마트 판매액은 0.7% 증가하여 백화점 위주로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
- 2012년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의 낮은 성장은 전년도 1월(19.8%)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
- 전반적으로 서울의 내수 성장은 2011년 6월 이후부터 평균 2%대에서 횡보하는 추세를 보여 향후 내수 정체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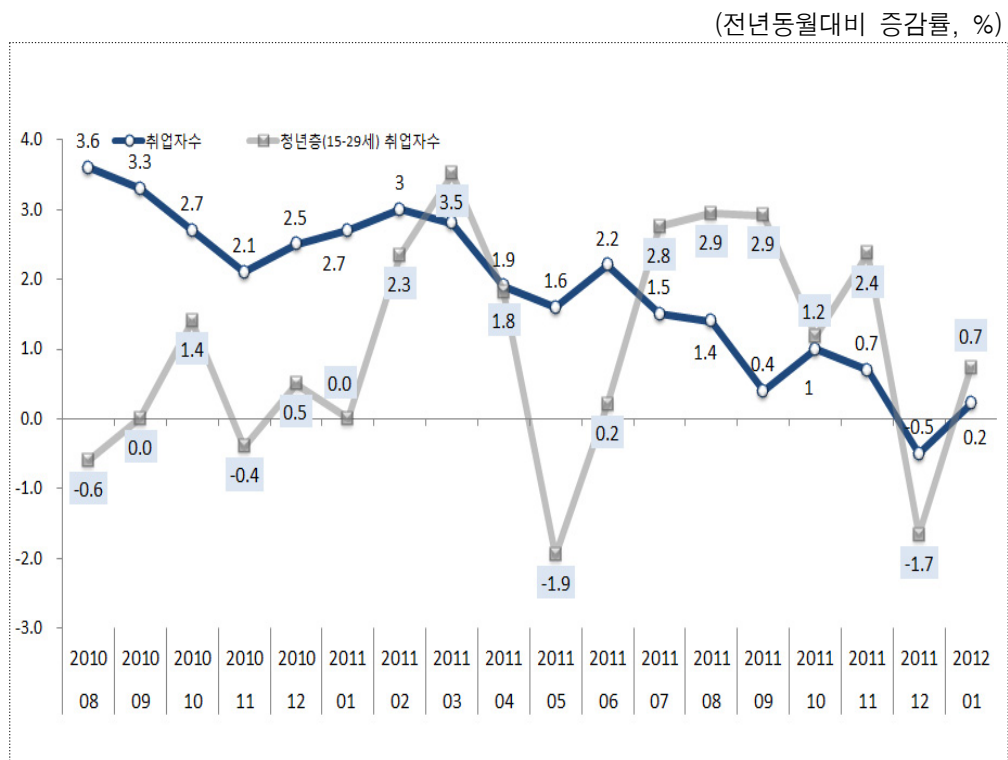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그림 2]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 서울의 취업자수 증가는 둔화되는 가운데 청년층 취업자수는 계절별 영향으로 소폭 상승

- 2012년 1월 서울의 총 취업자수 증가는 전년동월대비 0.2% 증가한 4,925명
- 총 취업자수 증가율은 2010년 8월 3.6%에서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 고용시장에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분석
- 2012년 1월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수 증가는 전년동월대비 0.7% 증가한 956명
- 2011년 11월과 12월 사이에 급격한 하락세 이후 다시 급등하는 양상은 대기업 채용 등에 따른 계절성과 취업시장 활성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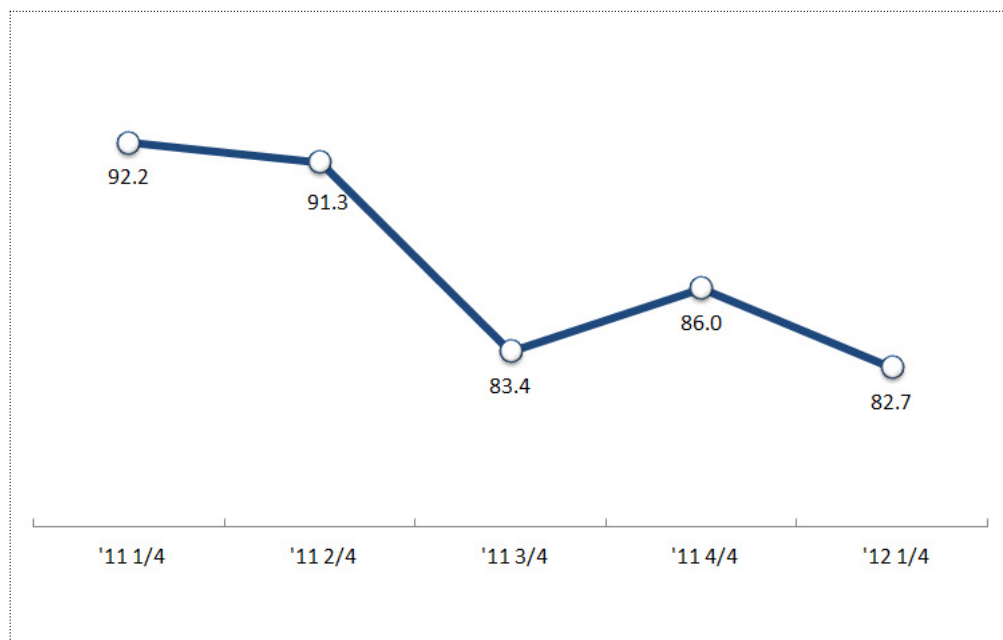
[그림 3] 서울의 취업자수

II. 서울의 1/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전망

서울 시민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

□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크게 위축된 소비심리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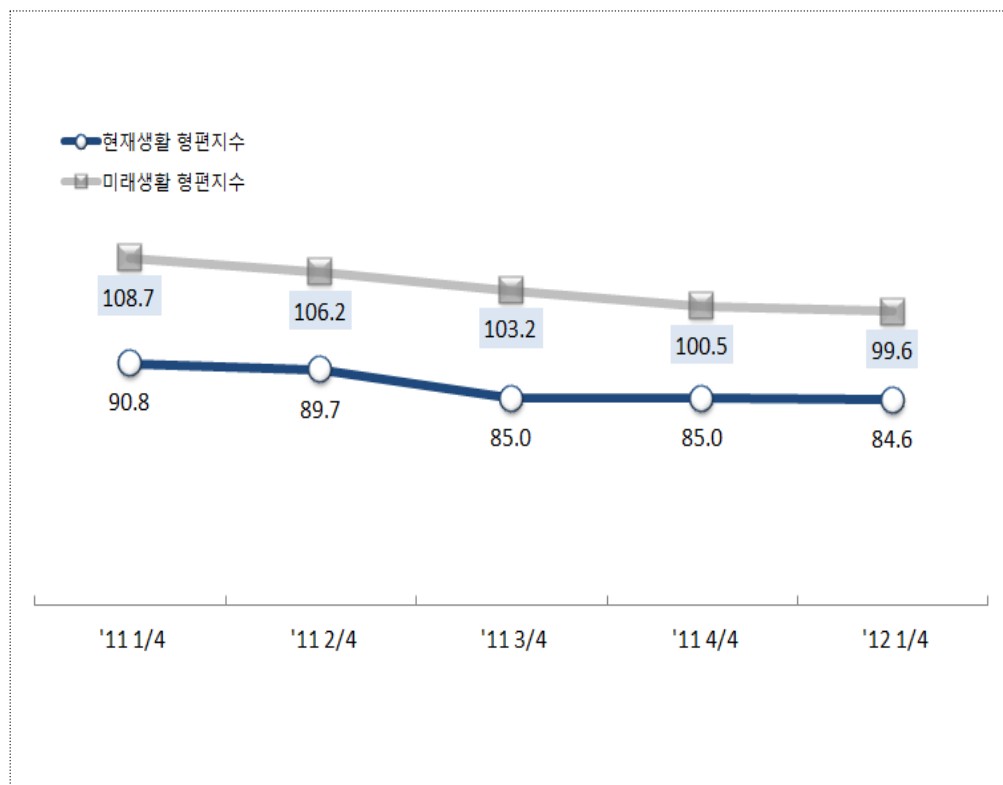
- 2012년 1/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82.7로 전분기보다 3.3p 하락
- 2009년 1/4분기 78.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최근 5분기 연속 기준치 100을 하회
- 물가상승 지속, 고용시장 악화, 가계채무 부담 가중 등에 따라 소비자 체감경기가 지속적으로 하락
-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불투명하고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심리가 쉽게 개선되지 않을 전망



[그림 4]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

□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와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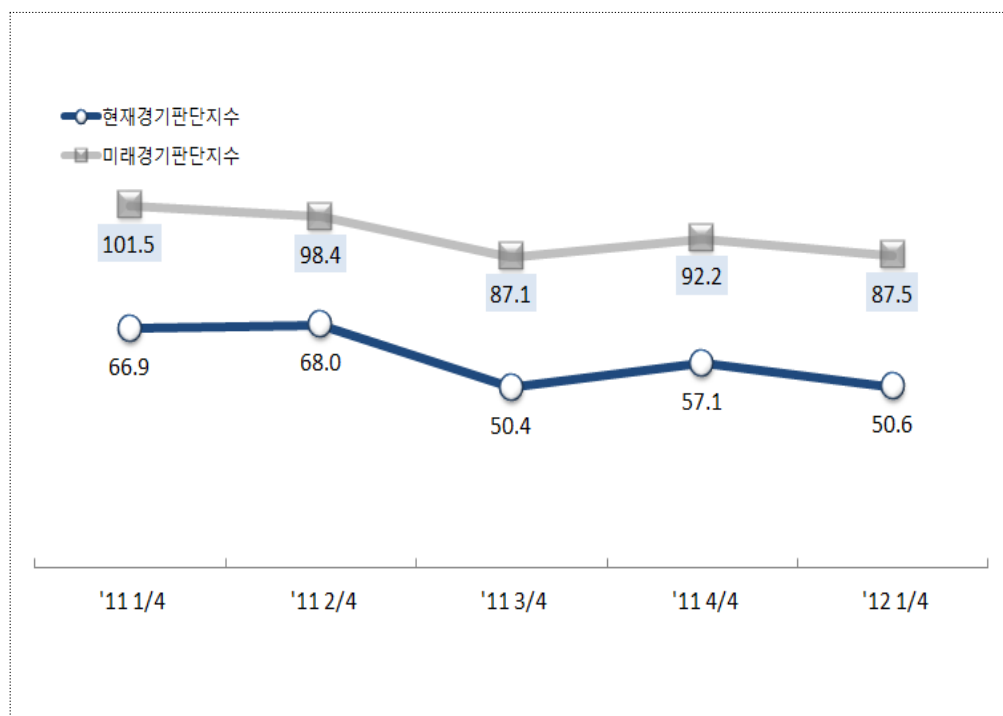
- 2012년 1/4분기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분기 대비 0.4p 하락한 84.6, 「미래생활형편지수」는 0.9p 하락한 99.6을 기록
- 「현재생활형편지수」는 기준치 100을 밑도는 수치로 1년 전에 비해 현재 생활형편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아졌음을 시사
- 「미래생활형편지수」도 5분기 연속 꾸준히 하락하여 2012년 1/4분기에는 기준치(100)를 하회



[그림 5] 서울의 생활형편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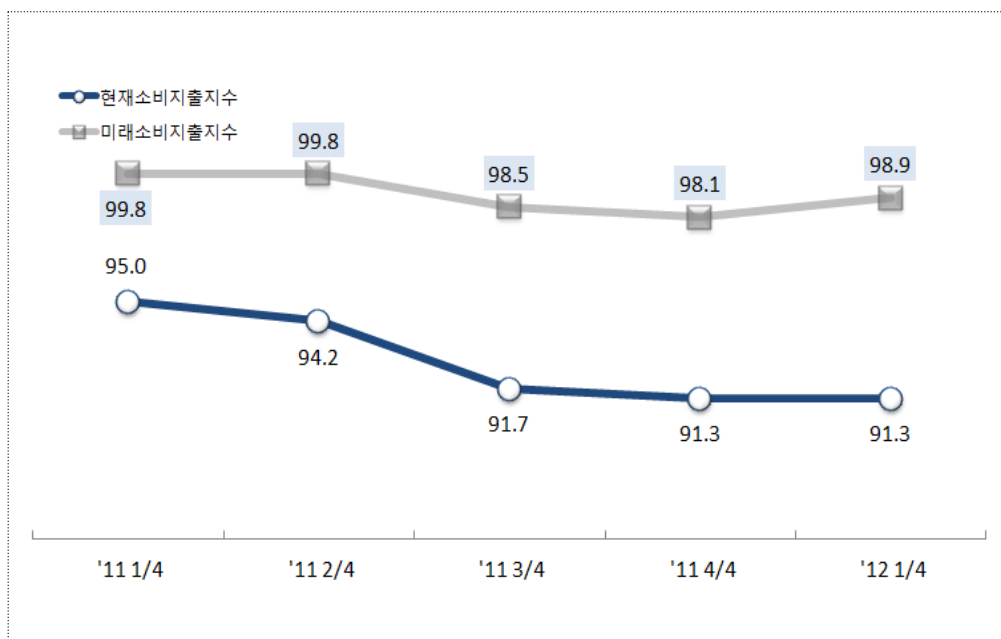
□ 「현재경기판단지수」와 「미래경기판단지수」는 전분기 대비 하락하여 기준치(100)를 하회

- 서울의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전분기 대비 6.5p 하락한 50.6을 기록
 -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여전히 기준치(100)를 크게 하회하고 있어 현재 경기에 대한 기대심리가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
- 2012년 1/4분기 「미래경기판단지수」는 87.5로 전분기 대비 4.7p 하락
 - 「미래경기판단지수」도 4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어 향후 경기가 낙관적이지 않음을 시사
 - 서울 시민들은 물가상승과 경제성장률의 둔화로 지난 분기보다 서울의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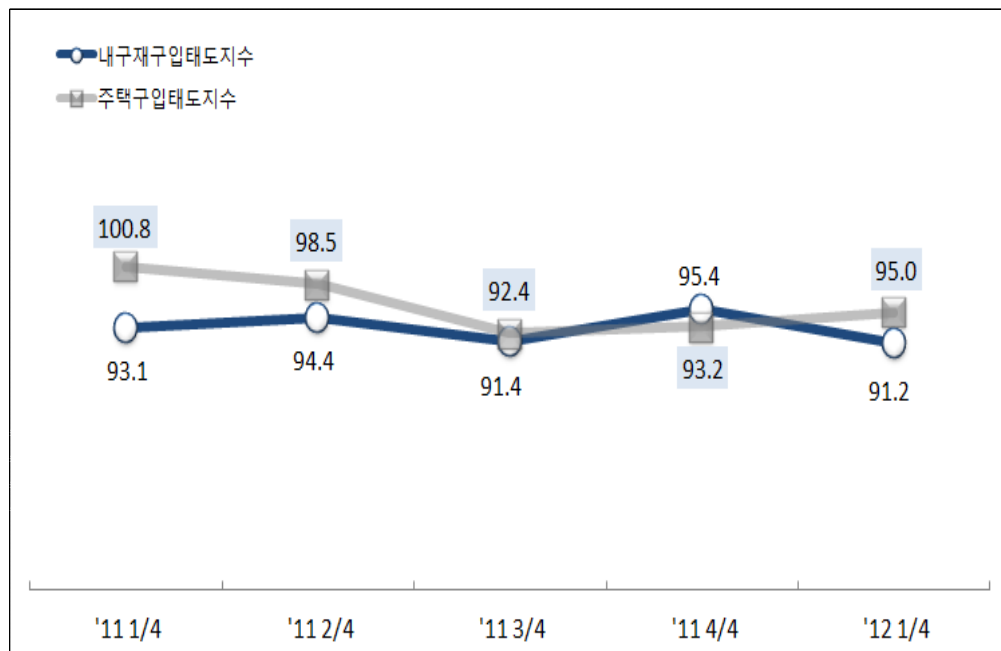
[그림 6] 서울의 경기판단지수

-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는 전분기 대비 보합인 반면,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소폭 상승
- 2011년 4/4분기까지 하락하던 「현재소비지출지수」는 2012년 1/4분기 91.3으로 전분기와 보합
 -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전분기 대비 0.8p 상승한 98.9를 기록하여 기준치(100)에 근접
 - 2011년 4/4분기 98.1로 최저점을 기록한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소폭 상승하여 미래소비에 대한 급격한 감소는 없을 전망
 - 품목별 「미래소비지출지수」 조사 결과 '교육/문화비'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서 전분기 대비 상승되어 전체적으로 지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 '교육/문화비(114.4)'가 전체 품목별 지출의 약 20%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소비 비중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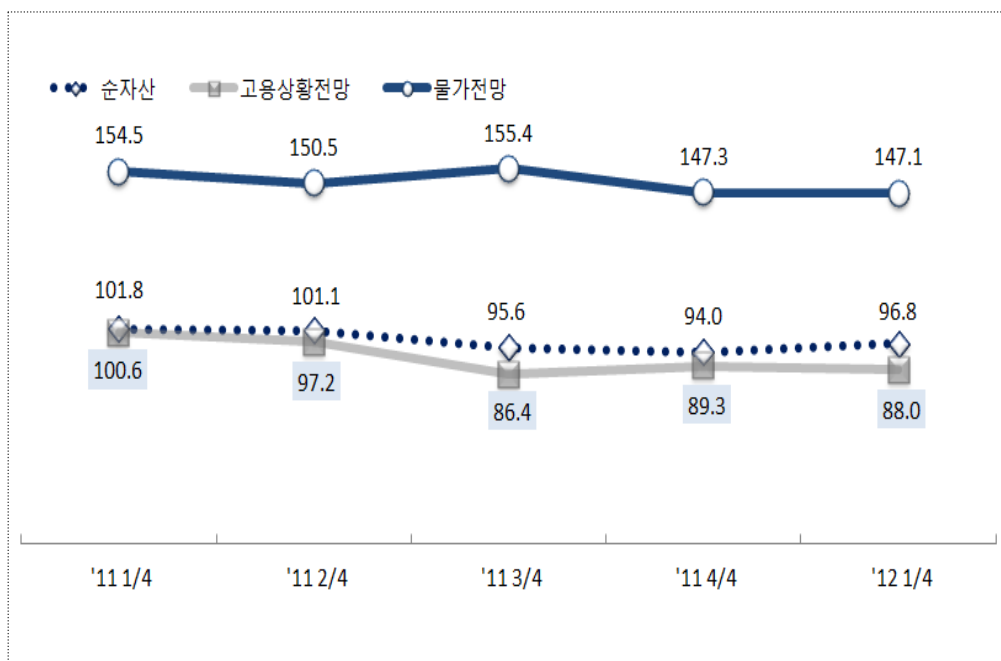
[그림 7]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 2012년 1/4분기 서울의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전분기 대비 하락, 「주택구입태도지수」는 상승
- 2012년 1/4분기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전분기 대비 4.2p 하락한 91.2를 기록
 - 2011년 1/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어 여전히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
 - 「주택구입태도지수」는 전분기 대비 1.8p 상승한 95.0을 기록하였으나, 기준치(100)를 밑돌아 소비자들은 주택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
 - 「주택구입태도지수」가 3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어 향후 서울 주택시장의 회복세 둔화 예상



[그림 8] 서울의 내구재 및 주택 구입태도지수

- 서울의 고용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소폭 상승한 가운데 물가 불안 심리는 다소 진정
- 2012년 1/4분기 「순자산지수」는 전분기 대비 2.8p 상승한 96.8로 하락세를 회복하고 있으나 아직 기준치(100)에 미달
 - 2012년 1/4분기 「물가예상지수」는 전분기보다 0.2p 하락한 147.1로 여전히 소비자들의 높은 물가 불안 심리 반영
 - 2011년 1/4분기부터 1년 동안 평균 151.0을 유지하여 물가 불안 심리 상태가 지속
 - 2012년 1/4분기 「고용상황전망지수」는 88.0으로 전분기 대비 1.3p 하락
 - 고용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으며 고용상황에 대한 불안심리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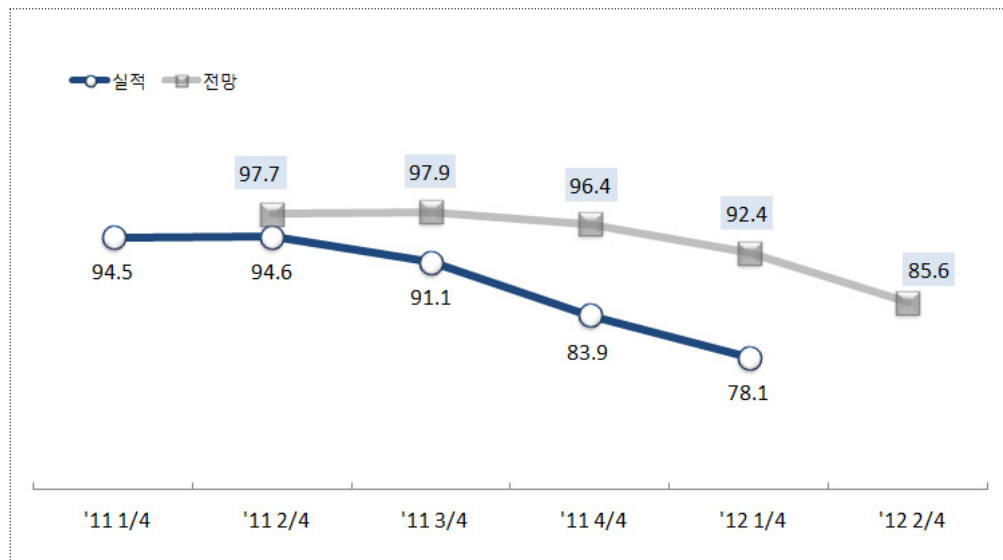


[그림 9] 서울의 순자산, 고용전망, 물가예상지수

Ⅲ. 서울의 1/4분기 기업 체감경기 전망

서울의 현재 및 향후 기업의 체감경기 모두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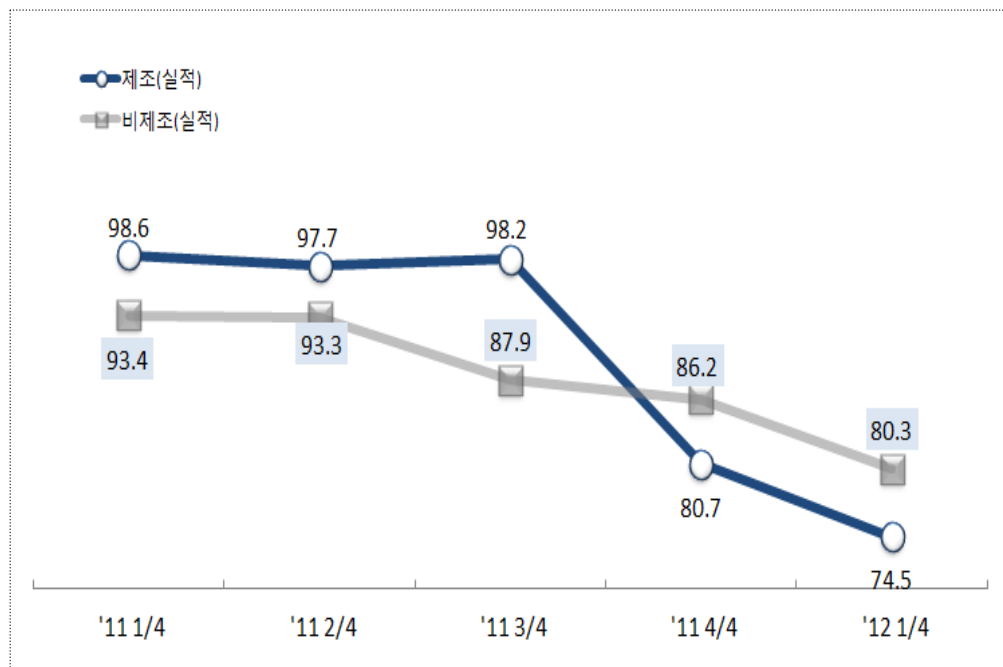
- 2012년 1/4분기 「업황실적지수」는 전분기 대비 5.8p 하락한 78.1, 「업황전망지수」는 전분기 대비 6.8p 하락한 85.6을 기록
 - 「업황실적지수」와 「업황전망지수」 모두 하락하여 서울소재 기업의 현재 및 향후 체감경기가 비관적임을 시사
 - 「업황실적지수」는 2011년 1/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어 기업의 현재 체감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반영
 - 향후 1분기 이후 기업의 업황실적을 전망하는 「업황전망지수」도 2011년 3/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하락하여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약화
 -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 지속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그림 10] 서울의 업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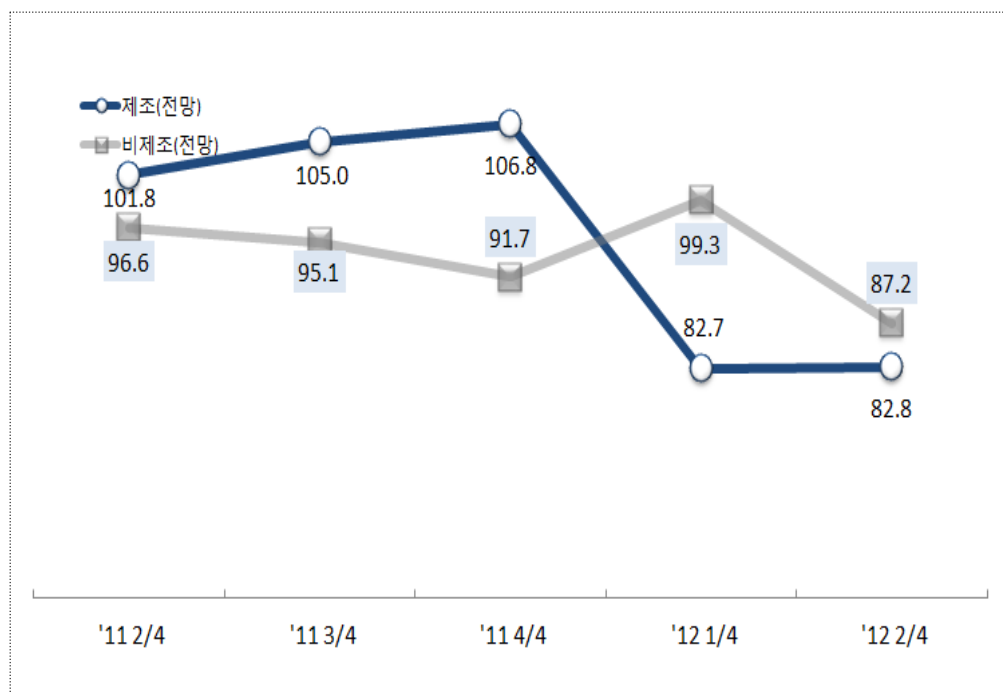
제조업의 기업 체감경기는 비제조업의 체감경기보다 더 저조

- 2012년 1/4분기 서울의 「제조업 업황실적지수」와 「비제조업 업황실적지수」는 모두 하락
 - 「제조업 업황실적지수」와 「비제조업 업황실적지수」는 전분기 대비 각각 6.2p 와 5.9p 하락하여 74.5와 80.3을 기록
 - 「제조업의 업황실적」은 2011년 4/4분기에 전분기 대비 17.5p 크게 하락한 후 2012년 1/4분기에도 하락세를 유지
 - 「비제조업의 업황실적」은 전분기에 비해 하락하고 있으나 2011년 3/4분기 이후 실적지수의 크기가 제조업을 상회
- 서울의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업황 악화는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내수 부진의 영향이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



[그림 11] 서울의 산업별 업황실적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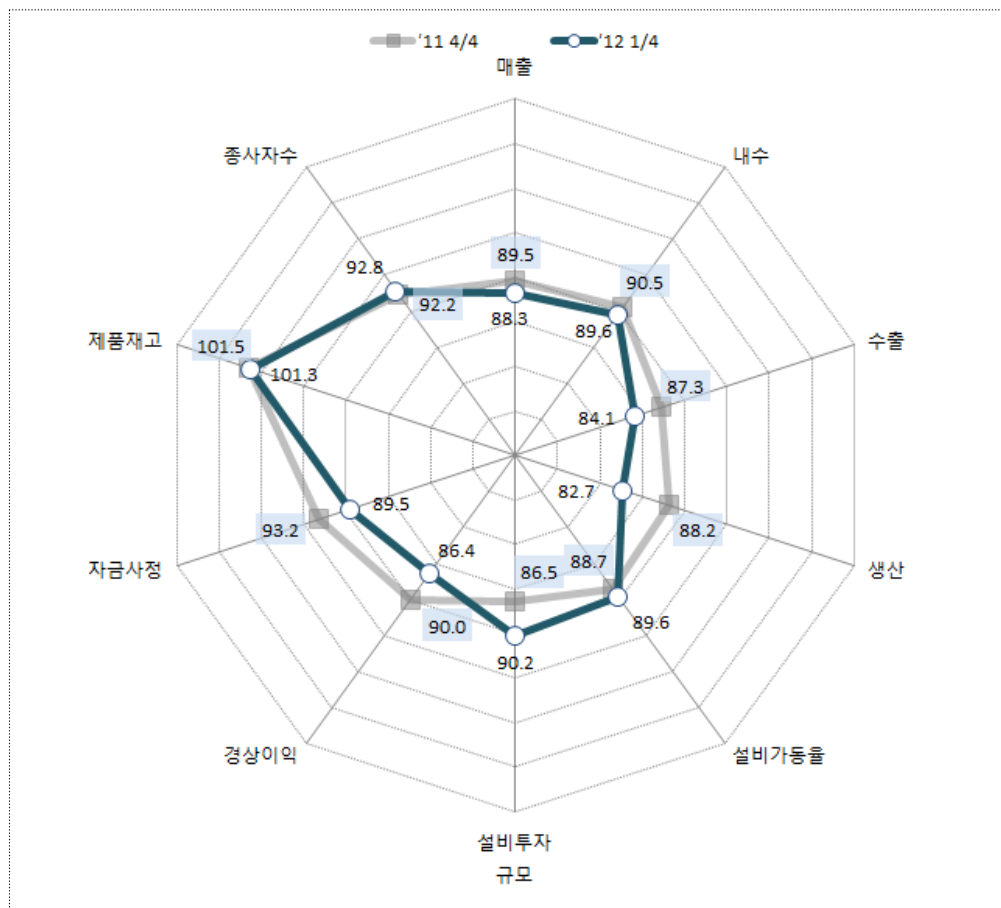
- 향후 1분기 이후 서울의 「제조업 업황전망지수」는 82.8, 「비제조업의 업황전망지수」는 87.2로 기준치(100)에 미달
- 2012년 2/4분기 「제조업 업황전망지수」는 82.8로 전분기와 거의 보합수준을 유지
 -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가시화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 더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
- 「비제조업 업황전망지수」는 최근 2년 동안 가장 낮은 87.2로 조사
 - 2012년 2/4분기 「비제조업의 업황전망지수」는 87.2로 전분기 대비 12.1p 감소하여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하락
- 서울의 전반적인 기업의 체감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



[그림 12] 서울의 산업별 업황전망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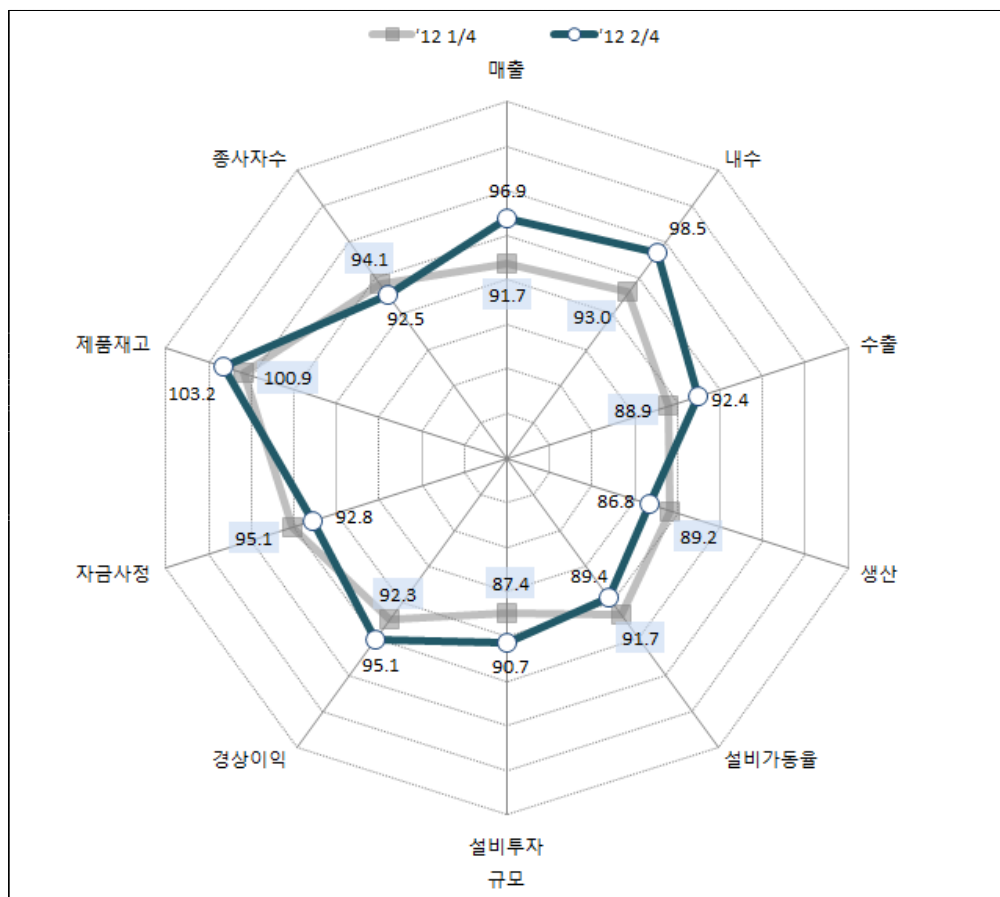
서울소재 기업의 경영환경은 전반적으로 악화

- 2012년 1/4분기 서울소재 기업의 주요 경영지표 대부분 악화된 것으로 조사
 - 기업의 주요 경영지표인 생산, 경상이익, 자금사정 등이 전분기 대비 각각 5.5p, 3.6p, 3.7p 하락하여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
 - 기업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수출 실적도 84.1로 전분기 대비 3.2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어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그림 13] 서울의 각 부문별 실적 지수

- 서울소재 기업의 경영여건은 2012년 2/4분기에서 개선될 것으로 조사
- 2012년 서울소재 기업의 경영여건은 내수, 매출, 경상 이익이 각각 전분기 대비 5.5p, 5.2p, 2.8p 상승할 것으로 조사
 - 경영여건과 관련된 주요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상승
 - 그러나 아직은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어 기업 체감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



[그림 14] 서울의 각 부문별 전망 지수

Ⅳ. 요약 및 시사점

서울의 성장 잠재력 약화,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 지속적 하락

- 서울의 산업생산 감소, 내수 정체, 고용 하락으로 성장 잠재력 약화
 - 서울의 산업생산과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율은 횡보세로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고용은 증가세 둔화
 - 2011년 8월 이후 회복세를 보였던 산업생산은 평균 -6%대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대형소매점 판매액도 평균 2%대 성장 유지로 경기 회복세 약화
 - 취업자수는 2012년 1월 전년동월대비 0.2%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증가세 둔화
- 물가상승 압력 지속과 경제 성장률 둔화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로 소비자 체감경기 계속 하락
 - 서울 시민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09년 1/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82.7을 기록
 - 5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하회하여 소비자 체감경기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
- 서울소재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업황실적지수」는 2009년 2/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78.1을 기록
 - 3분기 연속 하락폭 증가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하락하고 있음을 시사

서울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물가안정, 고용창출, 잠재성장력 회복 등의 대책 마련 필요

- 장기적으로 고용 창출 및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대책 필요
 -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시책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의 기회 모색
 - 직업 훈련이나 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직업전문학교 운영 등 고용여건 제도의 개선 필요
 - '청년창업 프로젝트',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 등 청년실업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장년창업센터 운영', '창업자금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한 창업 장려
-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도심에 특화된 중소규모 제조업 활성화로 서울의 잠재성장력 회복
 - 서울 산업 구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8대 신성장동력 산업(비즈니스 서비스, 금융, 관광전시, IT 융합, 바이오, 메디컬, 녹색산업,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패션) 및 4대 도시형 산업(인쇄, 의료봉제, 귀금속, 기계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도시 경쟁력 확보와 권역별 균형발전 유도
 - 경쟁력 기반이 취약한 중소 제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보호 프로그램 확대
 - 분식, 제빵, 세탁업 등의 대기업 진출 금지 품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소상공인특별진흥지구제 도입·운영으로 영세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 내수 증가를 통한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해 물가 안정화 노력 필요

-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상승,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인상으로 서민 경제 부담 가중
- 서울시 물가 안정을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물가정보망'에 대한 꾸준한 관리·감독이 필요
- 유통구조 개선과 경쟁촉진 등을 통한 물가안정 기반을 구축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 모범업소 확대, 물가정보 비교·공개 등을 통한 네트워크 협력 체제 마련

박희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27

hspark@sdi.re.kr

부록 : 2012년 1/4분기 주요 조사 결과

<표 1> 서울지역 소비자 태도 지수

	소비자 태도	생활 형편		경기 판단		구입 태도	
		현재 생활형편	미래 생활형편	현재 경기판단	미래 경기판단	내구재 구입태도	주택 구입태도
2011년 1/4분기	92.2	90.8	108.7	66.9	101.5	93.1	100.8
2011년 2/4분기	91.3	89.7	106.2	68.0	98.4	94.4	98.5
2011년 3/4분기	83.4	85.0	103.2	50.4	87.1	91.4	92.4
2011년 4/4분기	86.0	85.0	100.5	57.1	92.2	95.4	93.2
2012년 1/4분기	82.7	84.6	99.6	50.6	87.5	91.2	95.0

<표 2> 서울지역 소비자 소비지출 지수

	소비지출		순자산	고용상황	물가예상
	현재 소비지출	미래 소비지출			
2011년 1/4분기	95.0	99.8	101.8	100.6	154.5
2011년 2/4분기	94.2	99.8	101.1	97.2	150.5
2011년 3/4분기	91.7	98.5	95.6	86.4	155.4
2011년 4/4분기	91.3	98.1	94.0	89.3	147.3
2012년 1/4분기	91.3	98.9	96.8	88.0	147.1

<표 3> 서울지역 기업 경기 지수

구 분	실적					전망				
	2011년 1/4분기	2011년 2/4분기	2011년 3/4분기	2011년 4/4분기	2012년 1/4분기	2011년 2/4분기	2011년 3/4분기	2011년 4/4분기	2012년 1/4분기	2012년 2/4분기
매출	98.6	100.3	95.8	89.5	88.3	102.0	104.1	98.1	91.7	96.9
내수	98.6	100.1	95.6	90.5	89.6	102.3	103.9	97.7	93.0	98.5
수출	97.5	89.3	111.1	87.3	84.1	103.2	95.3	111.1	88.9	92.4
생산	96.7	94.7	107.9	88.2	82.7	104.5	102.1	107.2	89.2	86.8
설비가동률	95.1	96.3	101.9	88.7	89.6	98.8	103.8	105.7	91.7	89.4
설비투자규모	93.1	99.7	107.2	86.5	90.2	93.4	97.7	107.5	87.4	90.7
경상이익	107.1	100.6	92.9	90.0	86.4	109.7	102.7	95.9	92.3	95.1
자금사정	101.2	93.6	87.7	93.2	89.5	104.5	97.2	89.9	95.1	92.8
제품재고	98.7	95.6	101.6	101.5	101.3	95.9	99.3	98.6	100.9	103.2
종사자수	93.0	97.0	94.8	92.2	92.8	96.1	98.6	95.0	94.1	92.5

본 조사는 2008년 3/4분기 이후 서울지역 표본 1,000가구와 5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매분기 조사한 결과로, 표본의 신뢰수준은 95%, 오차는 $\pm 3.1\%$ 임(2012년 1/4분기 조사 시점은 2012년 2월 중순).